家計消費支出의 分布와 不均等要因 分析

——農家와 都市勤勞者 家口를 中心으로——

崔 奎 燮

▷ 目 次 ◁

Ⅰ. 序 論
Ⅱ. 不均等模型과 分析方法
Ⅲ. 支出分布와 그 集中狀態
Ⅳ. 支出分布의 變動要因
Ⅴ. 要約 및 政策的 意味

Ⅰ. 序 論

한 國家의 經濟成長이나 發展의 目的이 國民 全體의 福祉를 增進시키는 데 있다면 成長의 果實은 가능한 한 고루 分配되는 것이 理想的이다. 國民의 福祉는 무엇이 얼마나 生産되었는가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고 如何히 分配되었는가에 따라 福祉水準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經濟는 지난 60年代 이후 의욕적인 經濟開發計劃을 통해 급격한 成長을 하여 1人當 國民所得이 1975年 不變價格으로 1963年의 123千원에서 1978年에는 375千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全體國民의 生活水準도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社會의 어느 階層의 生活이 더 많이 改善되었으며 貧富間의 生活隔差의 樣相이 어떠한지 등은 分配問題가 現代國家의 主要政策課題로 강조되고 있는 點을 감안할 때 분명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國民 全體의 전반적인 福祉水準을 측정하는 데는 요즈음 GNP 槪念을 修正한 經濟厚生의 測定(measure of economic welfare)이나 社會指標(social indicatior)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方法論上에 合意點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階層別 生活水準을 動態的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는 그 尺度로 家計의 所得을 變數로 볼 것인가, 아니면 生活의 需要充足을 위한 財貨와 用役(goods and services)의 購入에 支拂되는 家計의 消費支出을 變數로 볼 것인가는 問題意識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筆者：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따라 달라질 수 있다. 所得이 낮은 層일수록 일반적으로 消費性向은 높아지므로 生活水準의 尺度로 所得水準이나 支出水準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所得이 높은 層일수록 生活水準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變數는 所得水準보다는 支出水準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階層間의 生活水準隔差나 支出類型別 消費支出의 隔差가 問題意識으로 指摘될 때는 家計의 消費水準이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所得分配에 관한 硏究는 여러 學者들[1]에 의해 많은 硏究結果가 發表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基本需要充足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貧困問題를 深度있게 분석한 硏究結果[2]가 발표되어 學界는 물론 政策立案者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와는 좀 달리 分配問題에 대한 視角을 消費者의 生活水準隔差에 맞추어 봄으로써 國民福祉의 다른 한 側面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의 목적은 所得階層別 家計支出의 分布를 추정하여 이를 動態的으로 分析하고 이들의 變動에 영향을 주는 變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하며, 이에 따라 階層間 支出隔差를 줄일 수 있는 政策的 方向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1) 이러한 硏究는 潘性紱(1979), 朱鶴中(1978), Adelman (1978) 참조.

2) 徐相穆(1979) 참조.

3) 需要에 영향을 주는 變數로는 價格과 所得 이외에도 다른 財貨의 購入量이나 消費者의 嗜好 등등이 變數로서 作用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이를 單純化하여 價格과 所得만을 變數로서 보고자 한다.

Ⅱ. 不均等模型과 分析方法

1. 不均等模型의 設定

所得階層間의 家計消費支出不均等에 영향을 주는 원천적인 變數를 有意性있게 選別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低所得層의 支出水準이 高所得層의 그것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階層間의 支出隔差는 財貨市場에서 絕對供給量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問題는 財貨와 用役에 대해 購買力을 갖는 所得이 階層間에 偏在되었거나 財貨의 價格이 低所得層에게는 過重하여 實需要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財貨와 用役의 需要는 自由市場 機能에 의해 決定되기 때문에 각 階層의 限定된 購買力은 階層間의 支出隔差를 가져오게 된다.

經濟理論에서 需要는 價格과 所得의 函數로 보고 있다[3]. 이에 따라 i 所得階層의 j 項目에 대한 支出(D_{ji})은 需要에 영향을 주는 j 項目의 價格(P_j)과 i 階層의 平均所得(Y_i)의 函數로 표시할 수 있다.

$$D_{ji}=d(P_j;Y_i) \quad \cdots\cdots\cdots\cdots(1)$$

또한 j 項目에 대한 支出不均等度(CR_j)는 j 項目에 대한 i 階層間의 支出 크기와 函數關係에 있으므로 (2)式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R_j=g(D_{ji}) \quad \cdots\cdots\cdots\cdots(2)$$

여기에서 (1)式을 (2)式에 代入하면 合成函

數의 法則(function of function rule)에 의해 (3)式과 같은 支出不均等函數(expenditure inequality function) 關係를 導出할 수 있다.

$$CR_j=f(P_j;Y_i)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3)$$

이와 같은 支出不均等 函數關係로부터 家計支出不均等의 變動에 대해 價格變動과 各階層間의 所得變動이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檢證하기 위해서는 이 支出不均等函數에 대해 구체적인 定式化(model specification)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函數가 指數函數型을 취할 때 추정된 「파라메터」(parameter)는 직접적으로 그 變數의 彈力性을 제공해 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 經濟分析에서 特定函數의 추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4]. 本硏究에서도 硏究目的上 設明變數(explanatory variable)의 彈力性이 중요시되므로 支出不均等函數를 아래의 (4)式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다시 代數變換(logarithmic transfortation)하여 (5)式과 같은 代數化한 線型方程式(logarithmic linear equation) 형태의 支出不均等方程式(expenditure inequality function)을 假定하였다.

$$CR_j=AP_j^{\alpha_j}\ Y_L^{\beta_{Lj}}\ Y_H^{\beta_{Hj}} \quad \cdots\cdots\cdots\cdots(4)$$

$$ln\,CR_j=lnA+\alpha_j lnP_j+\beta_{Lj}lnY_L +B_{Hj}lnY_H \quad \cdots\cdots\cdots\cdots(5)$$

(5)式에서 家計支出不均等度(CR_j)는 價格變數(P_j)와 두 階層의 所得變數(Y_L과 Y_H)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CR : 「지니」集中係數

j : 支出項目(例 : FD=食料品費, HO=住居費, FL=光熱費, CL=衣類費, ED=敎育費, MI=기타 雜費)

P_j : j 項目의 相對價格指數[5]

Y_L : 下位 60% 階層의 實質平均所得[6]

Y_H : 上位 40% 階層의 實質平均所得[6]이다.

이 式에서 所得階層을 下位 60% 階層과 上位 40% 階層으로 區分한 이유는 이용되는 統計資料의 中位値(median)를 갖는 階層이 所得階層으로 分類할 때 60% 內外에 位置한 家口로 밝혀졌고 실제의 回歸分析結果도 이 경우에 統計的 有意性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2. 分析方法

이상과 같은 支出不均等函數에서 推定된 彈力値의 크기에 따라 從屬變數로서의 支出不均等度와 設明變數로서의 階層別 實質所得과 相對價格關係를 圖示하면 〔圖 1〕과 같다. 〔圖 1〕의 (가)는 不均度(CR)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效果를 보여 주는데 만일 Y_H와 P가 不變일 경우 下位階層의 所得이 Y_L^1에서 Y_L^2로 增加한다면 CR은 CR^1에서 CR^L로 $\overline{AE}$만큼 낮아져 不均度(CR)는 그만큼 改善된다. 이때 β_L이 彈力的이면 β_L이 非彈力的일 때보다 不均度는 더욱 減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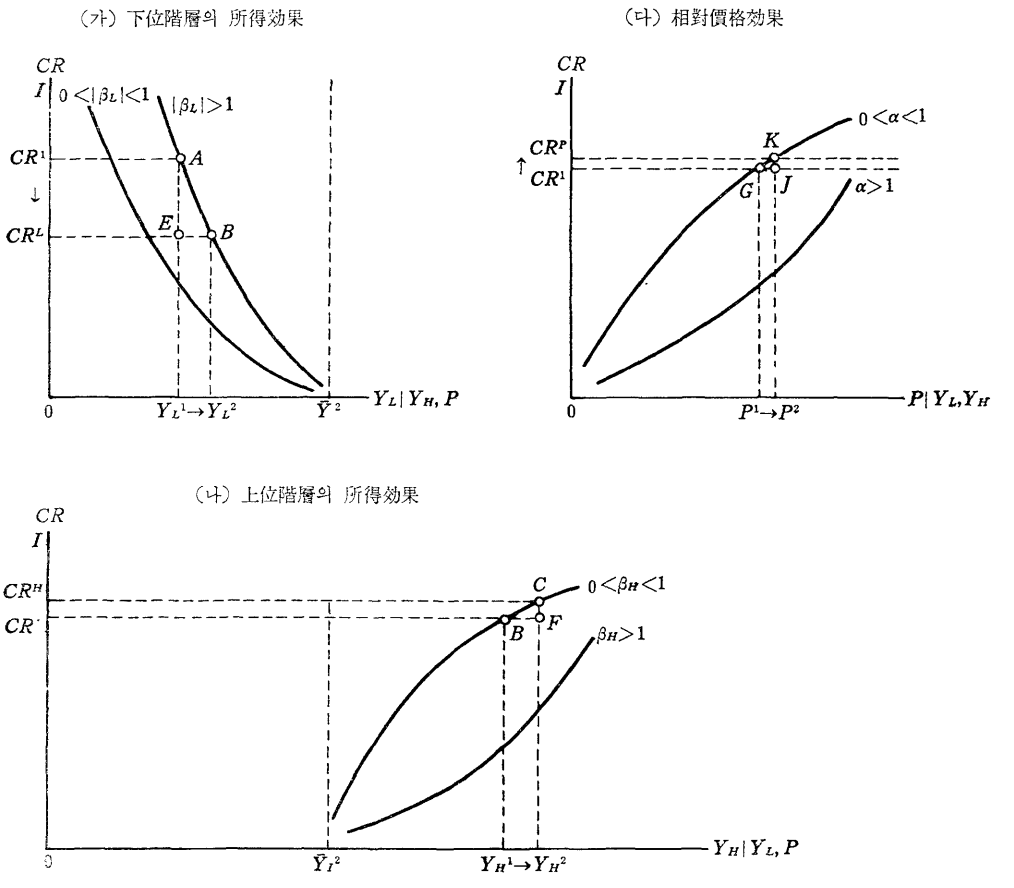
〔圖 1〕의 (나)는 CR에 관한 上位階層의 所

4) 이에 관한 代表的인 函數로는 잘 알려진 「콥·다글라스」(Cobb-Danglars) 生産函數가 있다.

5) 相對價格指數의 算定을 위해 各 該當 支出項目의 價格指數를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全都市 消費者物價指數로, 農家의 경우는 農家用品 購入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하였다.

6) 實質所得 算出에 사용된 「디플레이터」(deflator)는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 全都市 消費者物價指數, 農家의 경우는 農家用品 購入價格指數이다.

〔圖 1〕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所得階層別 相對價格의 영향



得効果를 보여주는데 만일 다른 變數가 不變일 경우 上位階層의 所得이 Y_H^1에서 Y_H^2로 增加한다면 CR는 $\overline{CF}$ 만큼 增加하여 不均等度(CR)는 그만큼 나빠지게 된다. 〔圖 1〕의 (다)는 CR에 관한 相對價格効果(relative price effects on expenditure inequality)를 보이는 것으로 두 階層의 所得이 不變이라도 相對價格이 P_1에서 P_2로 변할 경우 CR는 $\overline{KJ}$ 만큼 높아져 CR^P 수준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不均度의 前年同期比 增減(ΔCR)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Delta CR=\overline{KJ}(\uparrow)+\overline{AE}(\downarrow)+\overline{CF}(\uparrow) \quad \cdots\cdots\cdots\cdots(6)$$

(6)式을 달리 表示하면 (7)式이 되며

$$dCR=\frac{\partial CR}{\partial P}dP+\frac{\partial CR}{\partial Y_L}dY_L+\frac{\partial CR}{\partial Y_H}dY_H \quad \cdots\cdots\cdots\cdots(7)$$

(7)式에 다시 各變數의 彈力性을 導入하여 고쳐 쓰면 (8)式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7].

7) (8)式은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주어진 支出不均等函數는 (4)式에서

$CR=f(P, Y_L, Y_H)$ ……(4)

$$\dot{CR}=\alpha\dot{P}+\beta_L\dot{Y}_L+\beta_H\dot{Y}_H \quad \cdots\cdots\cdots\cdots(8)$$

여기서 $\dot{CR}$, $\dot{P}$, $\dot{Y}_L$, $\dot{Y}_H$는 前年比 增減率이다. (8)式은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가 分析期間中에 일어난 支出不均等變化에 미친 影響力(寄與率)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alpha\dot{P}$는 相對價格變化가 支出不均等變化에 미친 寄與率이고 $\beta\dot{Y}_L$과 $\beta\dot{Y}_H$는 下位階層(低所得階層)의 所得變動과 上位階層의 所得變動이 각각 支出不均等 變動에 미친 寄與率이 된다.

이러한 關係를 土臺로 하여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影響을 좀더 考察하기 위해 앞에서 言及된 (8)式을 다시 쓰면

$$\dot{CR}_j=\alpha_j\dot{P}_j+\beta_{Lj}\dot{Y}_L+\beta_{Hj}\dot{Y}_H \quad \cdots\cdots\cdots\cdots(8)$$

여기서 $\dot{CR}_j=0$가 되기 위한 必要條件 중의 하나는 (9)式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lpha_j\dot{P}_j=0,\quad \beta_{Lj}\dot{Y}_L+\beta_{Hj}\dot{Y}_H=0 \quad \cdots\cdots\cdots\cdots(9)$$

(9)式에서 $\dot{CR}_j=0$를 만족시키게 되는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과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을 各各 $\dot{Y}_L^{\circ}$과 $\dot{Y}_H^{\circ}$로 하면 (9)式은 다음과 같이 다시 表示된다.

$$\beta_{Lj}Y_L^{\circ}+\beta_{Hj}Y_H^{\circ}=0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0)$$

(10)式은 다시 두 階層의 所得增加率의 比와 두 階層의 所得變數 彈力値의 比를 양쪽으로 하는 (11)式이 된다.

$$\frac{\dot{Y}_L^{\circ}}{\dot{Y}_H^{\circ}}=\left|-\frac{\beta_{Hj}}{\beta_{Lj}}\righ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1)$$

(11)式에서 支出不均度가 不變($\dot{CR}=0$)이 되려면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의 比($\dot{Y}_L^{\circ}/\dot{Y}_H^{\circ}$)가 下位階層의 所得彈力値에 대한 上位階層의 所得彈力値의 比(β_{Hj}/β_{Lj}=편의상 다음부터 β比라 稱함)와 같아야 됨을 示唆하고 있다. 같은 方法으로, $\dot{CR}<0$, 즉, 支出不均度가 減少하는 條件은 (12)式과 같고 $\dot{CR}>0$, 즉, 增加하는 條件은 (13)式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frac{\dot{Y}_L^{-}}{\dot{Y}_H^{-}}>\left|-\frac{\beta_{Hj}}{\beta_{Lj}}\righ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2)$$

$$\frac{\dot{Y}_L^{+}}{\dot{Y}_H^{+}}<\left|-\frac{\beta_{Hj}}{\beta_{Lj}}\righ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3)$$

(11), (12), (13)式은 다시 (14)式으로 요약되어 정리된다.

$$\frac{\dot{Y}_L^{+}}{\dot{Y}_H^{+}}<\frac{\dot{Y}_L^{\circ}}{\dot{Y}_H^{\circ}}=\left|\frac{\beta_{Hj}}{\beta_{Lj}}\right|<\frac{\dot{Y}_L^{-}}{\dot{Y}_H^{-}} \quad \cdots\cdots\cdots(14)$$

(14)式에서 β比(β_{Hj}/β_{Lj})보다 $\dot{Y}_L^{-}/\dot{Y}_H^{-}$(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클 때는 支出不均度(CR)는 減少하고 $\dot{Y}_L^{+}/\dot{Y}_H^{+}$이 β比보다 작을 때는 支出不均度는 增加하게 된다.

Ⅲ. 家計支出分布와 그 集中狀態

本硏究의 對象母集團은 都市勤勞者家計와 農家家計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農家家

---

(4)式을 全微分(total differential)하면

$$dCR=f_P dP+f_{Y_L}dY_L+f_{Y_H}dY_H$$

또는 $$dCR=\frac{\partial CR}{\partial P}dP+\frac{\partial CR}{\partial Y_L}dY_L+\frac{\partial CR}{\partial Y_H}dY_H \quad \cdots\cdots\cdots(7)$$

그런데 $\alpha=\frac{\partial CR}{\partial P}\cdot\frac{P}{CR}$, $\beta_L=\frac{\partial CR}{\partial Y_L}\cdot\frac{Y_L}{CR}$, $\beta_H=\frac{\partial CR}{\partial Y_H}\cdot\frac{Y_H}{CR}$이므로 (7)式은 다시 (7)'式이 되고 이를 다시 (8)式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frac{dCR}{CR}=\alpha\frac{dP}{P}+\beta_L\frac{dY_L}{Y_L}+\beta_H\frac{dY_H}{Y_H} \quad \cdots\cdots(7)'$$

$$\dot{CR}=\alpha\dot{P}+\beta_L\dot{Y}_L+\beta_H\dot{Y}_H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8)$$

計의 所得水準이나 生活水準을 비교할 때 都市勤勞者 家計와 비교되는 경향에도 기인하지만 自營業者를 포함하는 全都市家口의 階層別 所得이 현재 統計當局에서 公式的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아 資料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8]. 그리고 家計支出分布의 分析對象이 될 支出項目은 주로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衣類費, 敎育費, 기타雜費 등이며 分析期間은 1963年부터 1978年이다.

1. 階層別 生計費支出 分布

〈表 1〉에서 우리나라 家口의 階層別 生計費支出(總消費支出) 分布를 보면 都市勤勞者 家口에서보다는 農家家口에서의 分布狀態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 1965年의 都市勤勞者家口의 「지니」集中係數는 0.269이고 農家의 그것은 0.175를 보여 큰 對照를 이루고 있다. 1970年에는 이들 두 部門의 「지니」係數[9]가 어느 정도 改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두 部門間에 큰 차이를 보여 都市勤勞者家口의 「지니」係數는 0.245이고 農家의 그것은 0.163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部門間의 生計費支出分布의 차이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77年에는 都市와 農家의 「지니」係數가 各各 0.261과 0.147를 보이고 있다. 「지니」係數보다 集中度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는 十分位分配率[10]을 보면 都市勤勞者家口에서의 十分位分配率은 1965年과 1978年에 각각 23.0/36.2와 24.6/35.4를 보이고 있어 이 기간에 下位 40% 階層

〈表 1〉 階層別 總消費支出 分布와 그 集中値

		十分位階層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0分位/1分位) 比
		1	2	3	4	5~8	9	10			
都市勤勞者家口(%)	1965	4.1	5.4	6.3	7.2	40.8	15.1	21.1	0.269	23.0/36.2	5.15
	1970	4.5	6.0	6.8	7.6	40.0	13.8	21.3	0.245	24.9/35.1	4.73
	1973	4.7	5.8	6.6	7.4	39.6	14.2	21.7	0.254	24.5/35.9	4.62
	1974	4.6	6.0	6.8	7.7	40.9	14.2	19.8	0.235	25.1/34.0	4.30
	1975	4.5	5.7	6.5	7.3	39.5	14.3	22.2	0.262	24.0/36.5	4.93
	1976	4.9	5.7	6.5	7.2	39.7	14.6	21.4	0.254	24.3/36.0	4.37
	1977	4.5	5.6	6.4	7.2	40.2	14.7	21.4	0.261	23.7/36.1	4.76
	1978	4.8	5.8	6.6	7.4	40.0	14.5	20.9	0.248	24.6/35.4	4.35
農家家口(%)	1965	5.5	6.7	7.4	8.2	42.5	13.6	16.1	0.175	28.3/29.7	2.87
	1970	5.9	7.0	7.8	8.5	41.9	13.2	15.7	0.163	29.1/28.9	2.66
	1973	6.1	7.2	7.9	8.6	42.0	13.0	15.2	0.152	29.8/28.2	2.50
	1974	5.7	6.8	7.6	8.4	41.9	13.5	16.1	0.173	28.5/29.5	2.83
	1975	5.7	6.9	7.7	8.4	42.0	13.4	15.9	0.170	28.6/29.3	2.78
	1976	5.7	6.9	7.7	8.4	42.1	13.4	15.8	0.168	28.8/29.2	2.75
	1977	6.2	7.3	8.0	8.7	41.8	12.9	15.1	0.147	30.1/27.9	2.43

註 : 十分位分配率=下位 40% 階層의 占有率/上位 20% 階層의 占有率.
(10分位/1分位)比=(最上位 10% 階層의 占有率/最下位 10% 階層의 占有率)의 比임.

8) 우리 나라의 家計調査 資料의 問題點에 대해서는 朱鶴中(1979, p.28~30) 참조.
9) 本稿에서의 「지니」係數들은 Kakwani-Podder의 「지니」係數 測定方法을 이용하여 算出하였다.
10) 十分位分配率은 上位 20% 階層의 占有率과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을 對比한 것으로 「지니」係數에 비하여 구체적이다.

의 占有率이 1.6%「포인트」增加하였고 대신 上位 20% 階層의 占有率은 0.8%「포인트」가 減少하였다.

農家部門에서는 이 十分位分配率이 1965年에 28.3/29.7이던 것이 1977年에는 30.1/27.9로 변동하여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이 1.8%「포인트」가 增加하여 역시 生計費支出分布가 다소 改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十分位分配率로 본 都市와 農家의 生計費分布 樣相에서 주목되는 것은 分析期間을 통해 都市勤勞者家口에서는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이 上位 20% 階層의 占有率보다 대체로 10%「포인트」가 낮은 데 반하여 農家에서는 이들 두 階層의 占有率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지니」係數보다 集中度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해 주는 10分位/1分位의 比를 보면 都市勤勞者家口의 最上位 10% 階層이 最下位 10% 階層보다 生計費支出面에서 4~5倍 높은 데 반하여 農家의 경우는 그것이 2~3倍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렇게 볼 때 生計費 分布面에서 都市勤勞者家口의 경우는 階層間 隔差가 基準年에서부터 1978年 期間에 약간 改善되기는 했으나 分布樣相이 좋다고 볼 수 없지만 農家의 경우는 都市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2. 支出項目別 消費支出 分布

〈表 2〉와 〈表 3〉은 각각 農家家口와 都市勤勞者家口에서의 支出項目別 支出分布와 集中度를 要約하여 集計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1965年에서부터 1970年代 초반까지는 대체로 「지니」集中係數(Gini concentration ratio)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이 期間에 分配狀態가 改善되었음을 보여 주었는데 그후 石油波動期인 1974~75年에는 모든 支出項目에서 다시 惡化되는 양상을 보였다. 支出項目別 不均等度의 크기를 比較해 보면 分析期間을 통해 敎育費支出에 대한 不均等度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雜費, 衣類費의 順이며 가장 낮은 項目은 光熱費이다. 食料品費의 「지니」係數는 光熱費에서 보다는 높지만 住居費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2〉와 〈表 3〉에서 支出項目別로 農家家計와 都市勤勞者家計의 支出分布狀態를 보면 대체로 農家에서의 支出分布 狀態는 모든 項目에서 都市勤勞者家口에서 보다 相對的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十分位分配率을 보면 더욱 뚜렷한데 食料品費의 경우 農家에서는 下位 40% 階層의 消費占有率이 上位 20% 階層의 그것을 언제나 앞지르고 있는 데 반해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오히려 上位 20% 階層의 消費占有率이 下位 40% 階層의 占有率을 약간 앞지르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1977年에 農家와 都市勤勞者家計의 十分位分配率은 각각 33.1/25.3과 27.4/31.0을 보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타 支出項目에서도 十分位分配率을 比較해 볼 때 農家의 支出分布狀態는 都市勤勞者家口에서보다 相對的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 나라의 農家家口와 都市勤勞者家口에서의 支出分布 狀態에서 注目할 것은 그간의 經濟成長으로 農家의 경우는 住居費와 光熱費의 경우에 1960年代 초반에 비해 1970年代 후반까지 이들의 支出分布狀態가 改善되지 못하고 있으며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住居費와 雜費支出項目에서 支出分布 狀態가 改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기타 支出項目에서는 支出分布 狀態가 「오일—

〈表 2〉 農家家口의 支出項目別 支出分布와 集中値

	食料品費 (*FD*)		住居費 (*HO*)		光熱費 (*FL*)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128	31.4/26.8	0.194	27.2/30.9	0.098	33.3/25.1
1970	0.120	31.9/26.3	0.097	33.5/25.0	0.109	32.7/25.7
1973	0.097	33.4/25.0	0.168	28.0/29.2	0.083	34.5/24.3
1974	0.106	32.8/25.5	0.240	24.3/29.9	0.111	32.6/25.8
1975	0.110	32.7/25.7	0.226	25.1/32.9	0.101	33.2/25.2
1976	0.102	33.1/25.3	0.199	26.8/31.1	0.095	33.6/24.9
1977	0.103	33.1/25.3	0.143	30.5/27.7	0.103	33.1/25.4

	衣類費 (*CL*)		教育費 (*ED*)		雜費 (*MI*)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219	25.6/32.5	0.381	16.6/44.5	0.240	24.3/33.8
1970	0.162	29.2/28.8	0.216	25.7/32.3	0.239	24.4/33.8
1973	0.169	28.7/29.2	0.271	22.5/36.1	0.225	25.1/32.8
1974	0.193	27.2/30.8	0.316	20.0/39.3	0.251	23.7/34.7
1975	0.190	27.4/30.5	0.296	21.1/37.9	0.238	24.4/34.8
1976	0.172	28.5/29.5	0.311	20.3/39.0	0.241	24.3/34.0
1977	0.152	29.8/28.2	0.279	22.0/36.7	0.216	25.8/32.3

註：十分位分配率=下位 40%階層의 占有率/上位 20%階層의 占有率.
住居費에는 自家 및 傳貰評價額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表 3〉 都市勤勞者家口의 支出項目別 支出分布와 集中値

	食料品費 (*FD*)		住居費 (*HO*)		光熱費 (*FL*)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214	25.8/32.0	0.268	24.7/37.8	0.210	27.4/31.7
1970	0.199	27.3/31.6	0.318	23.1/41.3	0.149	31.2/29.3
1973	0.201	27.3/31.9	0.226	27.5/35.5	0.197	28.1/32.6
1974	0.203	26.8/31.7	0.193	28.1/31.9	0.174	28.7/30.2
1975	0.205	26.8/31.9	0.350	21.7/44.2	0.178	28.9/30.7
1976	0.187	28.0/31.0	0.267	24.5/37.2	0.183	28.0/31.8
1977	0.194	27.4/31.0	0.289	22.9/39.3	0.180	28.4/30.9
1978	0.186	27.9/30.8	0.273	23.2/37.4	0.163	29.8/29.9

	衣類費 (*CL*)		教育費 (*ED*)		雜費 (*MI*)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5	0.409	15.1/46.7	0.536	9.1/57.5	0.421	14.7/47.8
1970	0.294	22.0/38.2	0.444	13.4/49.3	0.307	21.3/39.3
1973	0.282	22.7/37.7	0.459	13.5/51.6	0.347	19.2/42.7
1974	0.276	23.1/36.8	0.402	14.5/45.0	0.303	21.1/38.7
1975	0.345	19.9/42.8	0.374	16.8/44.1	0.328	20.4/41.3
1976	0.311	20.8/39.8	0.445	13.3/50.5	0.355	18.6/43.4
1977	0.337	19.2/41.2	0.479	12.5/53.1	0.355	18.8/43.4
1978	0.319	20.4/40.3	0.454	14.1/51.9	0.330	20.1/41.6

註：十分位分配率=下位 40%階層의 占有率/上位 20%階層의 占有率.
住居費에는 自家 및 傳貰評價額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쇼크」期間을 제외하고는 같은 期間에 대체로 改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支出項目에 대한 支出不均度의 變動要因을 보다 구체적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Ⅳ. 家計支出分布의 變動要因

1. 支出不均等 回歸模型 結果

支出不均等의 變動을 分析하기 위해 전술한 支出不均等 回歸方程式(式 5)을 支出項目別로 都市勤勞者家計와 農家家計에 대해서 推定한 結果가 〈表 4〉와 〈表 5〉에 각각 나타나 있다[11]. 먼저 農家家計에 대한 推定結果를 보면 方程式의 決定係數(R^2)는 食料品項目에서 가장 높아 食料品에 대한 支出不均度는 推定된 回歸線에 의해 81%가 설명되고 있는 데 반해 光熱費의 경우는 決定係數가 매우 낮다. 기타 支出項目에서의 決定係數는 대체로 만족스럽다 하겠다. 個別說明變數의 推定된 係數의 有意性은 所得變數에서 대단히 높아 光熱費項을 제외하고는 모든 項目에서 1~5% 水準에서

〈表 4〉 支出不均等方程式의 係數推定値(農家家口)

從屬變數	常數	設明變數의 彈力値			R^2	$F(3.12)$
		$\alpha_j \ln P_j$	$\beta_{Lj} \ln Y_L$	$\beta_{Hj} \ln Y_H$		
ln CRFD	3.722	0.553 (1.48)	−1.153 (−2.74)	0.671 (1.57)	0.813	15.98
ln CRHO	−8.169	1.668 (1.91)	−2.474 (−1.82)	2.821 (2.19)	0.500	3.67
ln CRFL	−3.750	0.135 (0.34)	−0.857 (−1.16)	0.919 (1.33)	0.175	0.78
ln CRCL	0.334	0.224 (0.55)	−2.548 (−3.34)	2.275 (3.41)	0.682	7.86
ln CRED	7.814	0.398 (0.86)	−3.939 (−3.43)	3.009 (3.11)	0.615	5.87
ln CRMI	0.116	0.091 (0.16)	−1.825 (−2.99)	1.624 (3.18)	0.535	4.21

註 : 標本期間은 1963~77年. 괄호 안의 數字는 t-값임.

〈表 5〉 支出不均等方程式의 係數推定値(都市勤勞者家口)

從屬變數	常數	設明變數의 彈力値			R^2	F	期間
		$\alpha_j \ln P_j$	$\beta_{Lj} \ln Y_L$	$\beta_{Hj} \ln Y_H$			
ln CRFD	−2.548	0.012(0.02)	−0.832(−1.61)	0.803(1.34)	0.778	$F(3, 6) = 7.01$	1963~72
ln CRHO	2.447	1.189(1.18)	−3.357(−2.78)	2.936(2.63)	0.647	$F(3, 5) = 3.10$	1970~78
ln CRFL	−0.069	0.036(0.10)	−0.870(−2.31)	0.658(1.89)	0.433	$F(3.10) = 2.54$	1965~78
ln CRCL	0.520	0.317(1.77)	−1.518(−8.07)	1.254(7.51)	0.915	$F(3.10) = 36.00$	1965~78
ln CRMI	−3.626	0.726(1.10)	−0.384(−0.90)	0.571(1.62)	0.483	$F(3. 5) = 1.56$	1970~78

註 : 괄호 안의 數字는 t-값을 나타냄.

11) 通常의 最小自乘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推定하였음.

有意하게 나타나고 있다. 價格變數에서는 所得變數의 경우와는 달리 有意性이 相對的으로 낮지만 食料品項目과 住居費項目에서는 5%水準에서 有意하다고 하겠다. 所得變數의 높은 有意性과 價格變數의 限定된 有意性 때문에 전체 說明變數를 한데 묶어 이들 變數의 個別係數를 통합적으로 有意性을 檢證한 결과 F값은 光熱費項을 제외하고는 모두 5% 水準에서 有意性을 보이고 있다.

推定된 回歸方程式에서 說明變數의 推定된 符號는 예상한 바와 같이 價格變數(α_j)는 正의 符號, 下位所得階層의 所得變數(β_{Lj})는 負의 符號, 그리고 高所得階層의 符號는 正의 符號를 각각 나타내고 있어 어느 項目에서나 支出不均等度는 그 項目의 相對價格과 上位階層의 所得과는 正의 函數關係에 있고 下位階層의 所得과는 負의 關係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推定된 係數의 크기를 比較해 보면 住居費支出不均等度에 대한 價格彈力値(α_j)는 상당히 彈力的이며 기타 項目의 그것은 非彈力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下位階層의 所得彈力値(β_{Lj})는 光熱費項을 제외하고는 모두 彈力的인데 특히 敎育費支出項目에서 가장 彈力的이며 食料品費項에서는 거의 單位彈力的으로 나타나 注目되고 있다. 한편 支出不均等度에 대한 上位階層의 所得彈力値(β_{Hj})는 食料品費項에서 대단히 非彈力的임을 보여 下位階層의 單位彈力性과 對照를 이루고 있어 下位階層의 所得向上이 相對的으로 전반적인 食料品費의 支出不均等度를 줄이는 데 큰 役割을 하고 있음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衣類費, 敎育費, 雜費項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表 5〉에 나타난 都市勤勞者家計에 대한 支出不均等方程式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統計的 有意性이 가장 높은 것은 衣類費項目($CRCL$)이며 기타 項目들도 비교적 有意性은 있다고 하겠다. 推定된 方程式에서 係數의 符號는 역시 $\alpha_j>0$, $\beta_{Lj}<0$, $\beta_{Hj}>0$으로 나와 期待된 것과 같게 나타났다. 推定된 設明變數의 彈力値는 農家에서와 같이 住居費支出項目에서 가장 彈力的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衣類費의 順으로 되어 있다.

2. 支出不均等의 變動要因分析

〈表 6〉은 農家에 대한 支出不均等 變動의 要因別 寄與率을 보여 주고 있다. 分析期間中(1963~77年) 下位階層의 年平均 實質所得增加率은 5.855%(A.2欄)이고 上位階層의 그것은 5.792%(A.3欄)였으며, 年平均 相對價格增加率은 交通費, 食料品費, 雜費의 順으로 높았으며 其他 支出項目의 相對價格은 (A.1)欄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相對的으로 減少하였다. 이러한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에 따라 支出項目別 「지니」係數의 變動率이 (A.4)에 나타나 있다. (C.1)에서 (C.5)까지의 要因別 寄與率을 보면 同期間中 下位階層所得寄與率은 −6.75%이고 上位階層所得寄與率은 3.89%를 보여 결국 이들 兩階層의 構造的인 所得變化가 食料品費 支出不均度를 年平均 −2.87%씩 改善시켜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相對價格의 上昇結果 支出不均度는 年平均 0.37%씩 增加하였으므로 全般的으로 同期間中에 일어난 物價와 所得의 變動으로 食料品費의 支出不均度는 −2.5%씩 改善되게 되었다. 支出項目들 중에서 敎育費의 경우는 같은 期間中 實質敎育費가 相對的으로 크게 增

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實質所得의 向上에 起因하여 敎育費支出不均度는 크게 改善되어 왔다. 注目할 것은 住居費와 光熱費項에서는 同期間中에 일어난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 變化로 支出不均度가 改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表 7〉에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增加率[12]을 보면 1963~72年間에 下位階層(A.2欄)과 上位階層(A.3欄)의 所得增加率은 각각 11.5%와 7.9%를 보여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上位階層의 그것을 앞질렀으나 1970~78年間에는 오히려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을 크게 앞지르는 現象을 보이고 있어 1965~78年間을 比較해 볼 때 都市勤勞者家口의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은 각각 5.2%와 5.7%를 보여 農家의 階層間 所得增加率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都市勤勞者家計에서의 이런 現象은 1970年代의 高物價 餘波와 産業化過程에서 上位階層이 相對的으로 所得面에서 유리한 立場이 아니었나

〈表 6〉 支出項目別 消費支出不均等 要因과 寄與率(農家家口)

項目 / 要因	食料品費 (FD)	住居費 (HO)	光熱費 (FL)	衣類費 (CL)	敎育費 (ED)	雜費 (MI)
年平均增加率(%)						
(A.1) $\dot{P}_j$	0.667	−0.317	−1.480	−1.999	4.451	1.993
(A.2) $\dot{Y}_L$	5.855	5.855	5.855	5.855	5.855	5.855
(A.3) $\dot{Y}_H$	5.792	5.792	5.792	5.792	5.792	5.792
(A.4) $\dot{CR}$	−2.568	0.777	0.276	−2.502	−3.054	−0.059
彈力値(elasticity)						
(B.1) α_j	0.553	1.668	0.135	0.224	0.398	0.091
(B.2) β_{Lj}	−1.153	−2.474	−0.857	−2.548	−3.939	−1.825
(B.3) β_{Hj}	0.671	2.821	0.919	2.275	3.009	1.624
支出不均等의 要因別 寄與率(%)						
(C.1) $\alpha_j\dot{P}_j$	0.369	−0.529	−0.200	−0.447	1.770	0.181
(C.2) $\beta_{Lj}\dot{Y}_L$	−6.753	−14.484	−5.020	−14.917	−23.062	−10.688
(C.3) $\beta_{Hj}\dot{Y}_H$	3.888	16.342	5.324	13.179	17.951	9.404
(C.4) C.2+C.3	−2.865	1.858	0.304	−1.738	−5.114	−1.284
(C.5) C.1+C.4	−2.496	1.329	0.104	−2.185	−3.344	−1.103
支出不均等改善指標(ratio)						
(D.1) β_{Hj}/β_{Lj}	0.582	1.141	1.072	0.893	0.787	0.889
(D.2) $\dot{Y}_L/\dot{Y}_H$	1.011	1.011	1.011	1.011	1.011	1.011

註 : 1) $\dot{P}_j$, $\dot{Y}_L$, $\dot{Y}_H$, $\dot{CR}$는 各各 相對價格, 下位階層所得, 上位階層所得, 「지니」係數의 增加率임.
(C.1)=相對價格 寄與率
(C.2)=下位階層所得 寄與率
(C.3)=上位階層所得 寄與率
(C.4)=總所得 寄與率
(C.5)=總所得과 相對價格 寄與率
2) 年平均增加率은 複利率로 計算하였음.
3) 標本期間은 1963~77年.

12) 本稿에서는 自家 및 傳貰評價額이 포함되지 않은 所得을 사용하였음.

여겨진다. 이러한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에서 都市勤勞者家計의 支出不均等 變動의 要因別寄與率을 〈表 7〉에서 보면 食料品의 경우 1963~72年의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相對的으로 유리하여 不均等度는 同期間中 크게 改善되었다. 住居費와 雜費의 경우는 1970~78年間에 下位階層이 所得增加面에서 相對的으로 불리하여 同期間中 두 階層間의 構造的인 所得變動 樣相에 따라 이들 項目의 支出不均度를 多少 增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衣類費의 경우는 1965~78年間에 두 階層의 所得寄與率(C. 4欄)과 相對價格寄與率(C. 1欄)이 각각 −0.88%와 −0.72%를 보여 衣類費支出不均等度를 改善시켜 왔다. 注目할 것은 이러한 過去의 두 階層間의 所得增加率의 趨勢에 따른 所得分配 樣相만으로는 住居費와 雜費支出의 不均衡을 改善시키지 못한 점이다. 한 國家經濟의 成長이나 發展의 目的이 全體國民의 福祉를 增進시키는 데 있다면 家計支出의 階層間不均衡狀態는 가능한 改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家計間의 支出不均度를 改善하기 위한 所得分配의 政策指標인 β比에 대하여 論한 바 있다. 〈表 6〉에서 이러한 β比(β_{Hj}/β_{Lj})는 (D. 1)欄에, 두 階層의 所得增加率의 比는 (D. 2)欄에 各各 나타나 있다. 農家의 食料品費 支出의 경우 分析期間동안의 $(\dot{Y}_L/\dot{Y}_H)$比는 1.011로서 β比 0.582보다 높으므로 食品費의 支出不均等度는 改善되어 왔다. 이러한 現象은 衣類費, 敎育費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住居費

〈表 7〉 支出項目別 消費支出不均等要因과 寄與率(都市勤勞者家口)

項目 / 標本期間 / 要因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衣類費	雜費
	1963~72	1970~78	1965~78	1965~78	1970~78
年平均增加率 (%)					
(A. 1) $\dot{P}_j$	0.881	−3.949	−1.348	−2.774	−2.154
(A. 2) $\dot{Y}_L$	11.552	4.299	5.188	5.188	4.299
(A. 3) $\dot{Y}_H$	7,913	7.778	5.704	5.704	7.778
(A. 4) $\dot{CR}$	−2.520	1.262	−0.847	−1.553	1.202
彈力値(elasticity)					
(B. 1) α_j	0.012	1.189	0.036	0.317	0.726
(B. 2) β_{Lj}	−0.832	−3.357	−0.870	−1.518	−0.384
(B. 3) β_{Hj}	0.803	2.936	0.658	1.254	0.571
支出不均等의 要因別 寄與率(%)					
(C. 1) $\alpha_j\dot{P}_j$	0.011	−4.695	−0.049	−0.879	−1.564
(C. 2) $\beta_{Lj}\dot{Y}_L$	−9.611	−14.432	−4.514	−7.875	−1.651
(C. 3) $\beta_{Hj}\dot{Y}_H$	6.354	22.836	3.753	7.153	4.441
(C. 4) C. 2+C. 3	−3.257	8.404	−0.761	−0.722	2.790
(C. 5) C. 1+C. 4	−3.246	3.709	−0.810	−1.601	1.226
支出不均等改善指標 (ratio)					
(D. 1) β_{Hj}/β_{Lj}	0.965	0.875	0.756	0.826	1.487
(D. 2) $\dot{Y}_L/\dot{Y}_H$	1.460	0.553	0.910	0.910	0.553

註 : (A. 1)~(D. 2)의 符號說明은 〈表 6〉을 참조.

의 경우는 (Y_L/Y_H)比가 β比보다 약간 낮아서 支出不均度는 改善되지 못하고 있다. 〈表 7〉에서 都市勤勞者家計의 衣類費를 보면 分析期間(1965~78年)동안의 $(\dot{Y}_L/\dot{Y}_H)$比 (D.1欄)는 0.91로서 이 때의 β比(D.2欄) 0.826을 앞질러서 支出不均等度는 改善되어 왔다. 이러한 現象은 食品費와 光熱費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住居費와 雜費의 경우는 $(\dot{Y}_L/\dot{Y}_H)$比가 β比보다 작기 때문에 不均等度는 1970~78年間에 나빠져 왔다.

이렇게 볼 때 β比는 支出不均等度가 改善되거나 惡化되는 所得分配의 轉換點을 提示해 주는 指標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農家家口의 住居費 支出不均等度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過去보다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相對的으로 높아져야겠으며 都市勤勞者 家計의 경우도 住居費와 雜費 등의 支出不均等度을 줄이기 위해서는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을 過去보다 월등히 높여 최소한 β比가 提示하는 수준에 가까와져야겠다.

V. 要約 및 政策的 意味

本硏究는 1960年代 초반 以後의 高度成長過程을 통해 國民의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所得階層間의 生活隔差 樣相이 어떻게 變遷하여 왔는가를 考察하고자 하는 데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서 資料利用이 가능한 農家와 都市勤勞者家計를 對象으로 階層別 家計支出의 分布를 推定하였고 그 結果를 動態的으로 分析하고 이들의 變動에 影響을 주는 變數들이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糾明하여 階層間의 支出隔差를 改善할 수 있는 政策的 方向을 模索해 본 實證的인 硏究結果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結論的으로 指摘할 수 있다.

첫째,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生計費에 대한 階層間 支出不均等度는 60年代 초반에서 1970年代 초반까지는 대체로 「지니」集中係數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이 期間에 分配狀態가 改善되었음을 보여 주었는데 그후 石油波動期인 1974~75年에는 모든 支出項目에서 다시 惡化되는 樣相을 보였고 1976年부터는 多少 改善되는 趨勢를 보여 왔다. 支出項目別 不均等度의 크기를 보면 分析期間을 통해 敎育費(農家), 雜費, 衣類費의 順으로 높았으며 食料品費와 光熱費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全般的으로 모든 項目에 걸쳐 農家에서의 支出不均等度는 相對的으로 都市勤勞者家口에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物價와 所得側面에서의 家計支出不均等要因을 考察하기 위해 支出不均等函數를 推定한 결과 支出不均等度(Gini係數)에 대한 相對價格의 彈力値는 正(+)의 符號, 下位 60% 階層의 實質所得 彈力値는 負(−)의 符號, 上位 40% 階層의 所得彈力値는 正(+)의 符號를 나타내어 相對價格의 上昇과 上位階層의 所得增加는 家計支出分布를 惡化시키는 役割을 하여 왔고 下位階層의 所得增加는 그것을 改善시키는 役割을 하는 것으로 模型의 係數가 推定되었다,

세째, 이러한 函數關係로부터 推定된 說明變數의 彈力値 크기와 分析期間中에 일어난 이들 變數들 自體의 構造的인 變化에 따라 家計支出不均等度가 影響을 받아 왔는데 分析期間을 통해 農家의 食料品費와 敎育費, 雜費는 相對價格이 引上되어 이들 項目의 支出不均等

狀態를 限定的으로 惡化시켜 왔으며 그러나 所得側面에서 보면 그간의 經濟成長으로 都·農家口의 所得이 꾸준히 增加되어 農家에서는 住居費와 光熱費를 제외하고는 모든 項目에서 支出分布狀態가 改善되어 왔으며, 都市勤勞者家計에서는 住居費와 雜費를 제외하고 역시 改善되어 왔다. 특히 食料品의 支出不均度가 改善된 것은 所得增大의 役割이 커서 每年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의 「지니」係數는 각각 −3.3%와 −2.7%씩 減少되었다.

끝으로 支出分布가 改善되지도 惡化되지도 않는, 다시 말해 「지니」係數의 不變狀態($\dot{CR}=0$)를 만족시켜 주는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適正 所得增加率의 「파라메터」인 β比를 支出不均等函數에 기초하여 各 支出項目別로 推定하였다. 이러한 β比는 農家의 住居費에서 1.14를, 都市勤勞者家計의 住居費와 雜費에서 각각 0.875와 1.49를 보이고 있다. 農家의 경우 過去(1963~77)에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年平均 所得增加率이 각각 5.9%와 5.8%를 보여 $(\dot{Y}_L/\dot{Y}_H)$比는 1.011을 보여 住居費의 β比 1.14에 못미치므로 앞으로는 이 部門의 支出不均度를 改善시키기 위해서는 下位階層의 所得이 上位階層의 所得보다 相對的으로 빠르게 增大되어야 한다.

都市勤勞者家計의 경우는 1970~78年間에 下位階層과 上位階層의 年平均 所得增加率이 각각 4.3%와 7.8%를 보여 두 階層間의 所得增加率의 比$(\dot{Y}_L/\dot{Y}_H)$가 0.553을 보여 住居費의 β比 0.875에 크게 못미치므로 都市勤勞者家計의 住居費의 支出不均等度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下位階層의 所得增加率이 上位階層보다 대폭적으로 增大되어야 한다.

上述한 分析은 分配問題에 대한 視角을 消費者의 生活水準隔差에 맞추어 봄으로써 國民福祉를 다른 한 側面에서 接近해 본 硏究結果이다. 물론 現實的으로 可用資料의 制約도 있었지만 60年代 초반 이후의 韓國의 家計支出分布狀態를 分析하기 위해 불완전하나마 처음으로 試圖해 본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더 深度있는 硏究를 期待하며, 支出分配에 관한 硏究에 하나의 始發點이 되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

潘性紈,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編,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㉚, 1979.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65~78.

_____, 『物價年報』, 1970, 1975, 1979.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63~78.

農協中央會, 『農村物價總覽』, 1979.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㉚, 1979.

_____, 「階層別 所得分布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硏究』, 第1卷 第1號, 韓國開發硏究院, 1979.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硏究』, 第1卷 第2號, 韓國開發硏究院, 1979.

Adelman, I. and Sherman Robison, *Income Distribution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 Press, 1978.

Chiang, A.C.,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onomics*, 2nd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5.

Choo, H.C.,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8.

Chung, Y.I., "Overtime Changes in the Regional and Urban-Rural Income Differences in Korea", Tokyo, Manila, Th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1975.

Crokett, J. and Irving Friend, "A Complete Set of Consumer Demand Relationships", in Irving Friend and Robert Jones(eds.), *Consumption and Saving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0.

Friedman, M., *Price Theor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6.

Hayami, Y., and Robert W. Herdt, "Market Price Effects of Technological Change on Income Distribution in Semi Subsistence Agricul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59, No.2, 1977.

Iyengar, N.S., "Distribution of Consumption and Income", *A Survey of Research in Economics*, Bombay, Vol., 1978.

Johnstone, J., *Econometric Methods*, 2nd 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1977.

Kakwani, N.C. and N. Podder, "Efficient Estimation of the Lorenz Curve and Associated Inequality Measures from Grouped Observations", *Econometrica*, Vol.44, No.1, 1976.

Mizoguchi, T. and C. Saeki, "A Study on Expenditure Distribution-Methodology and its Application to Japanese Case", Paper presented for the CAMS-Hitotsubashi University Seminar, Tokyo: 1978.

Pearson, E.S. and N.L. Johnson, "Tables of Incomplete Beta-Function", Londo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Suh, S.M. "The Patterns of Poverty in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內

①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 18 切 判 · 122 面 / 高級洋裝 · 1,200원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 18 切 判 · 158 面 / 高級洋裝 · 1,800원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 18 切 判 · 250 面 / 高級洋裝 · 2,000원

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 18 切 判 · 146 面 / 高級洋裝 · 3,000원

⑤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 柳炳瑞 共著 — 18 切 判 · 318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⑥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 A.O. Krueger 編 — 18 切 判 · 254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⑦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 18 切 判 · 198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⑧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 18 切 判 · 294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⑨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 L.E. Westphal 共著 — 18 切 判 · 336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⑩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 18 切 判 · 236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⑪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 18 切 判 · 202 面 / 高級洋裝 · 3,000원

⑫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秦 著 — 18 切 判 · 250 面 / 高級洋裝 · 3,500원

⑬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 18 切 判 · 508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⑭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 18 切 判 · 492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⑮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 18 切 判 · 342 面 / 高級洋裝 · 4,000원

⑯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 18 切 判 · 532 面 / 高級洋裝 · 4,500원

⑰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 18 切 判 · 252 面 / 高級洋裝 · 3,500원

⑱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 18 切 判 · 370 面 / 高級洋裝 · 3,500원

⑲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 18 切 判 · 244 面 / 高級洋裝 · 3,500원

⑳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 18 切 判 · 214 面 / 高級洋裝 · 3,500원

㉑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 18 切 判 · 410 面 / 高級洋裝 · 4,000원

㉒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 M. Roemer 共著 — 18 切 判 · 194 面 / 高級洋裝 · 3,500원

㉓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 18 切 判 · 306 面 / 高級洋裝 · 5,000원

㉔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 18 切 判 · 204 面 / 高級洋裝 · 3,500원

㉕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 18 切 判 · 166 面 / 高級洋裝 · 3,500원

㉖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 18 切 判 · 198 面 / 高級洋裝 · 4,000원

㉗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 18 切 判 · 250 面 / 高級洋裝 · 4,000원

㉘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 18 切 判 · 180 面 / 高級洋裝 · 3,500원

㉙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 18 切 判 · 192 面 / 高級洋裝 · 4,000원

㉚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 18 切 判 · 470 面 / 高級洋裝 · 5,500원

㉛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 18 切 判 · 410 面 / 高級洋裝 · 5,000원

㉜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 18 切 判 · 272 面 / 高級洋裝 · 4,500원

㉝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 18 切 判 · 236 面 / 高級洋裝 · 4,000원

㉞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 18 切 判 · 270 面 / 高級洋裝 · 4,500원

㉟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 18 切 判 · 306 面 / 高級洋裝 · 5,000원

㊱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 18 切 判 · 272 面 / 高級洋裝 · 4,000원

㊲ 保健醫療資源 및 診療生活圈

延河淸 金學泳 共著 — 18 切 判 · 336 面 / 高級洋裝 · 5,500원

㊳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 18 切 判 · 272 面 / 高級洋裝 · 4,500원

㊴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 18 切 判 · 256 面 / 高級洋裝 · 4,000원

㊵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 18 切 判 · 414 面 / 高級洋裝 · 5,000원

㊶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 近刊

㊷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烋 著 — 近刊

㊸ *SOUTH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1910~75*

A. Keidel 著 — 近刊